LG 임찬규 '2023 일구상' 최고 투수 선정 한국 프로야구 OB 모임인 사단법인 일구회는 '2023 뉴트리디데이 일구상' 수상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뉴트리디데이 일구대상(JTBC 최강야구)에 이어 9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주는 최고 타자상은 한화 노시환이 선정됐고, 최고 투수상은 국내 선수 가운데 최다승을 올린 LG 임찬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11월 10일 오후 경기 수원시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3 KBO 한국시리즈 3차전 LG 선발 임찬규가 미소를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정후 미국 출국…내달 초 포스팅 전망

KBO, 24일 MLB 사무국에 포스팅 요청

샌프란시스코·양키스 등 행선지로 거론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노리는 이정후(25)가 미국행 비행기를 탄다.

키움 히어로즈 구단 관계자는 28일 "이정후가 오늘 미국으로 출국한다. 미국에서 계획된 훈련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후는 현지 적응 등을 위해 예정보다 일찍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포스팅 시점이 12월 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른 출국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의 존 헤이먼 기자는 28일(한국시간) 개인 SNS에 "KBO리그 최우수선수(MVP) 출신인 이정후는 12월 초에 포스팅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정후의 원소속팀 키움은 22일 이정후의 의료 기록 등 포스팅 시스템(비공개 경쟁입찰)에 필요한 자료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제출했고, KBO는 24일 이정후를 MLB 30개 구단에 포스팅해 줄 것을 MLB 사무국에 요청했다.

MLB 30개 구단은 MLB 사무국이 포스팅을 고지한 다음 날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30일째 되는 날의 오후 5시까지 이정후와 계약 협상이 가능하다.

부상에서 1군에 등록된 키움 이정후가 3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 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이정후는 MLB 사무국이 포스팅을 공식 발표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에이전트인 스콧 보라스와 함께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MLB 구단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20개 팀이 이정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미국 현지에서는 외야 보강이 절실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뉴욕 양키스를 이정후의 예상 행선지로 꼽고 있다.

미국 매체 NBC 스포츠 베이 에어리어는 "이번 비시즌 프리에이전트(FA) 중 중견수로는 코디 벨린저가 최고지만, 이정후가 샌프란시스코에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스포츠 매체 ESPN은 양키스가 이정후를 영입해야 한다고 추천한 바 있다.

현지 매체들은 이정후의 계약을 낙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5000만 달러(약 648억원) 이상의 대형 계약을 맺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시스

순천대 출신 우슈 선수들, 전국체전 맹활약

사회체육학과 출신 선수들, 전국체육대회서 일반부 1위

순천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출신 선수들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우슈경기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해 일반부 전국체전 1위를 달성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15년 만에 전남에서 개최됐던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우슈경기에 나선 순천대 사회체육학과 출신들의 활약이 특히 주목됐다.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 김민수는 순천대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으로, 올해 3월 첫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제31회 청두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에 순천대 소속으로 출전했지만,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다.

절치부심한 김민수는 이후 9월에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산타(투기종목) -60kg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상승 기세를 탄 김민수 선수는 10월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우슈경기 산타-60kg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순천대 사회체육학과를 졸업한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슈팀 소속 주장 윤웅진(전남도청)은 산타-56kg에서 한 라운드도 상대에게 내주지 않고 퍼펙트게임으로 금메달을 획득해, 5회 연속 금메달 획득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사회체육학과와 일반대학원을 졸업한 장민규(전남도청)는 투로 태극권전능에서 깜짝 금메달을 획득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사회체육학과 조의민(전남도청)은 올해 전남도청 우슈팀에 입단해 쟁쟁한 경쟁자들을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했으나, 판정 등에 대한 아쉬움을 남긴 채 준결승에서 패해 동메달을 획득했다.

순천대 일반대학원 졸업 김영준(전남도청)도 남권전능에 출전해 마지막날 짜릿한 역전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순천대 출신 선수들은 금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순천=조순익 기자

김영권·안영규·제카·티아고, K리그1 시즌 MVP 후보

감독상 후보는 김기동·이정효·조성환·홍명보

프로축구 K리그1 2023시즌 최우수선수(MVP) 후보에 김영권(울산), 안영규(광주), 제카(포항), 티아고(대전)가 올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3 하나원큐 K리그1, K리그2의 최우수감독상과 MVP, 영플레이어상, 베스트11 등 개인상 후보를 28일 발표했다.

개인상 후보는 연맹 기술위원회(TSG) 소속 위원, 취재기자, 해설위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후보선정위원회가 각 구단이 제출한 부문별 후보 명단을 바탕으로 기록 지표와 활약상을 고려해 각 부문 4배수를 추렸다.

김영권은 올 시즌 리그 31경기에 나서 울산의 2연패에 앞장섰다. 광주 안영규는 31경기에서 2골 2도움으로 승격팀 돌풍 주역으로 활약했다.

제카는 이번 시즌 12골 7도움을 기록으로 포항의 리그 2위를 이끌었다. 티아고는 16골 6도움으로 37라운드까지 리그 최다 공격포인트(22개)를 기록하고 있다.

K리그1 올해의 감독상은 김기동(포항), 이정효(광주), 조성환(인천), 홍명보(울산)가 경쟁한다.

영플레이어상 후보는 김주찬(수원), 이호재(포항), 정호연(광주), 황재원(대구)이 올랐다.

K리그2에선 발디비아(전남), 원두재(김천), 이한도(부산), 조르지(충북청주)가 MVP를 다툰다.

감독상 후보는 고정운(김포), 박진섭(부산), 이영민(부천), 정정용(김천) 감독이, 영플레이어상 후보는 김민준(김천), 안재준(부천), 조성권(김포), 조위제(부산)다.

감독상, MVP, 영플레이어상은 1명씩, 베스트11은 골키퍼 1명, 수비수 4명, 미드필더 4명, 공격수 2명이 받는다. 베스트11 수비수와 미드필더 부문은 좌, 우, 중앙을 구분해 수상자를 가린다.

수상자는 후보를 대상으로 28일부터 각 구단 감독(30%), 주장(30%), 미디어(40%) 투표로 뽑는다.

시상식은 내달 4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www.homae.co.kr

2023 검도인의 밤 행사 전남 선수들 표창 휩쓸어

대한검도회에서 주최하는 '2023 검도인의 밤 행사'에서 전남 검도인·단체가 표창을휩쓸었다.

전남도검도회는 지난 25일 경북 영천에서 열린 '2023 검도인의 밤 및 대한체육회장기대회 환영회'에서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 장학금, 우수단체상, 우수지도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먼저, 2023년 올해 최우수선수상은 무안군청 유하늘이 수상했다.

유하늘 선수는 올해 '대통령기 제45회 전국검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우승, 제104회 전국체전 단체전 2위, 각종 대회에서도 상위입상하며 '최강검사' 타이틀을 차지했다.

우수한 학생선수에게 주어지는 이순종 우수선수 장학금은 초당대학교 윤하늘(4학년) 학생이 수여했다.

올 한해 주목할만한 성적을 거둔 단체에게 주어지는 우수단체상은 일반부 무안군청, 대학부 목포대학교가 차지했고, 우수지도자상에서는 일반부 무안군청 이광철 감독, 대학부 문선욱 감독이 우수지도자상의 영예를 안았다.